

신안군, 전국 첫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결실 맺다

안좌·자라도 전체 주민에 12~51만원...연간 최대 820만원

3년만에 첫 배당금...오늘까지 신안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결실을 맺었다.

4인 가구에 연간 최대 820만원의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급이 현실화되고 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8년 10월5일 제정된 이후 3년만에 첫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배당금은 1분기 몫으로, 안좌도와 자라도 전체 주민 2935명에게 개인당 12만원에서 51만원을 26일부터 27일까지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박우량 군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감사와 격려를 할 계획이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

에 관한 조례'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주민이 합동조합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토록 했다. 개발 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취지이다.

이 조례에 따라 안좌도 주민들은 96MW 태양광발전사업의 총사업비 2830억원 중 4%, 자기자본의 30%인 113억원을 채권매입 방식으로 참여했다. 자라도 주민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24MW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발전소는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1분기 수익금의 30%인 4억2000만원을 배당금으로 할당했다.

가구당 최고액은 자라도에서 거주하는 가

족이 4명인 4가구가 각각 204만원, 연간 82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안좌도 읍동마을과 참마마을 10인 가구 가정에는 각각 120만원이 배당됐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도(100MW), 사육도(70MW)는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가 올해 말이면 주민배당금이 배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안좌면에 추가로 204MW,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각 100MW, 2023년에는 비금면에 300MW, 신의면에 200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된다.

또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3000여 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조례 시행된 지난 2018년 10월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르며, 만 30세 이상의 전입 즉시 자격이 주어진다.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태양광발전소. (사진=신안군 제공)

박우량 군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정책 실현이 되기까지 태양광발전소, 송전시설 설치 등 공사에 생활이 불편함

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준 주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안=이택주기자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여전히 개선 필요”

“관련 법 제정 20년 지났지만 제자리”

“아직도 인식부족·문제 발생 아쉬워”

공공기관에는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 시설을 마련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시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성군 소재에 위치한 장성공공도서관은 현재 건물 출입문 옆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다.

휠체어를 내릴 공간은 충분하지만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막인 캐노피가 없어 비가 오는 날에는 옷이 모두 젖는 등 불편함이 크다.

반면 관용차량 주차장과 일반 주차구역에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어 대조적이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해 차별없이 누구나 편의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위) 비가림막이 없는 장애인 주차구역. (아래) 관용차량 주차장.

야 한다.

이 같은 일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과 무

관심, 행정 편의주의가 빚은 결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민간 시설에서도 장애인 보행권 확보와 접근성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요즘, 누구보다 약자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A씨는 “이런 장애인 주차장은 무늬만 장애인 주차장이지 이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장성공공도서관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며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추후에 예산 편성이 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윤희기자

광주서도 세금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압류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압류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26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 현황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압류대상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으로, 이들 중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좌를 압류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자료가 방대해 현황 조사는 한 달 가량 걸릴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윤여정, 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관련기사 13면>

제10회 보성세계차(茶)엑스포

2022 10th BOSEONG WORLD TEA EXPO

• 기간 2022. 4. 29. ~ 2022. 5. 5.

• 장소 보성군 일원

보성세계차(茶)엑스포가 2022년에는 제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됩니다.